

II. 지역정보하이라이트

중국지역

■ 中, 금년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

□ 교역액, 수출액, 무역수지 흑자 기준 모두 1 위

- 금년 들어 대중수출이 50%이상의 급증세를 보이며 중국은 최초로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국과의 수출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

< 한·중 교역추이 >

(단위 : US\$ 억, %)

구 분	2000 년	2001 년	2002 년	2003 년	2004. 1-7
총 액	314.1(43.2)	314.9(0.2)	411.4(30.6)	570.9(38.7)	438.9
對中수출	186.1(37.6)	181.9(-1.4)	237.5(30.6)	351.9(47.8)	280.3(56.3)
對中수입	128.0(62.4)	133.0(3.9)	173.9(30.8)	219.0(25.9)	158.6(33.3)
무역수지	58.1(3.5)	48.9(-2.8)	63.5(29.8)	132.9(109.2)	121.7

(자료원: KOTIS, ()은 증감율)

- 교역액 기준으로 '92 년 한·중 수교 당시 6 위에서 93 년 3 위로 상승하였고 이후 10 년이 지난 지난해 2 위로 한 단계 올라간 후 금년 1 위로 부상하였음.
- 수출액 기준으로 '92 년 제 6 위 수출대상국이었던 중국은 2001 년 일본을 앞서 2 위로 부상한 뒤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자리잡았음.
- 수입액 기준으로 92 년 5 위 수입국에서 93 년과 94 년 각각 4 위와 3 위로 상승한 이후 지금까지 3 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.
- 무역수지 기준으로 3 대 흑자시장에서 지난해 최대 흑자시장으로 올라섰으며 그 규모도 매년 더욱 크게 확대되고 있음.

< 2004 년 1-7 월간 주요 교역 대상국별 수출입 현황 >

(단위 : US\$ 억)

수출			수입			무역수지		
순위	국가	금액	순위	국가	금액	순위	국가	금액
1	중국	280.3	1	일본	268.7	1	중국	121.7
2	미국	240.5	2	미국	161.5	2	홍콩	93.6
3	일본	124.1	3	중국	158.6	3	미국	79.0
4	홍콩	116.6	4	사우디	61.5	4	멕시코	14.7
5	대만	54.7	5	독일	47.7	5	베트남	13.6

(자료원 : KOTIS)

□ 전자부품 뜨고, 화학·철강제품 지고

- 대중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컴퓨터 부품, 무선통신기기 부품, 자동차 부품이 의 수출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전통적인 수출품목인 화학, 철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.
- 중국의 관련 제품시장과 가공수출 확대에 따라 IT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수요는 빠르게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,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반면 철강 및 화학제품의 수출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정책과 반덤핑조치와 맞물려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.

< 연도별 대중 주요수출품목 순위변화 >

(단위 : US\$ 억)

2002			2003			2004.1-7		
순위	품목	금액	순위	품목	금액	순위	품목	금액
1	합성수지	16.9	1	합성수지	21.1	1	컴퓨터부품	18.8
2	무선전화기	13.0	2	컴퓨터부품	19.9	2	합성수지	16.5
3	컴퓨터부품	9.4	3	무선통신기기부품	17.4	3	무선통신기기부품	16.4
4	무선통신기기부품	8.5	4	집적회로반도체	14.4	4	집적회로반도체	14.0
5	석유화학합성원료	8.1	5	모니터	13.4	5	모니터	12.5
6	음극선관	7.5	6	무선전화기	12.6	6	광학기기부품	10.3
7	모니터	7.2	7	중유	10.8	7	자동차부품	9.7
8	중유	6.9	8	석유화학합성원료	10.7	8	석유화학합성원료	9.6
9	집적회로반도체	6.1	9	자동차부품	9.4	9	열연강판	8.3
10	석유화학중간원료	5.7	10	열연강판	8.9	10	석유화학중간원료	7.0

(MTI 4 단위 기준)

(자료원 : KOTIS)

□ IT와 부품 위주의 수출 품목구조 전환 노력 강화해야

- 가격경쟁력 위주의 단순수출은 중국제품의 기술력 향상으로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첨단부품 위주의 제품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지속 요구됨.
- 우리의 전통 수출제품인 철강, 화학제품의 안정적인 수출증가와 함께 IT 제품의 부상이 대중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.
- 매년 대중수출과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정부의 반덤핑 규제와 흑자폭 축소요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.
- 중국정부의 반덤핑 제소 대상제품은 주로 철강과 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품 및 IT 제품은 해당되지 않아 수출시장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.
- 또한 중국은 전세계 FDI 유치 1 위 국가로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현지 생산체계가 갖추어지고 있어 수입시장은 부품시장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됨.

(작성자 :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@kotra.or.kr)